

"상여는 제주 마을 공동체 상징하는 유산"

[김순이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마을주민들 상여접(계)으로 마련

데스크승인 2014.07.31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상여는 제주의 마을 공동체를 상징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다. 1980년대까지 도민들은 가족의 장례식에 대비해 상여접(계)을 구성해 공동으로 상여를 마련했는데 보통 마을마다 2~3개 접(계)이 존재했다. 평소 상여는 마을 어귀나 외딴 장소에 지어진 상여집에 보관됐다.

김순이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과거 장례식은 일주일은 기본이고 길게는 보름 걸렸다. 마을에 사람이 죽으면 온 주민이 장기를 발휘하며 관을 짜고 지관 데려오고 상복을 짓는 등 서로 합심해 장례를 치렀다"며 "그때 접·계원들이 상여를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관혼상제를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치르는 등 말 그대로 공동체였기 때문에 서로 가족만큼 가까웠고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소 이웃의 경조사를 잘 살폈다"며 "젊은이들이 친인척이 아닌데도 윗사람을 삼촌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상여는 제주 선인들의 민속신앙이 잘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상여 최상단에 뱀 형상이 조형된 점이 대표적으로, 도민에게 뱀은 회귀·재생의 상징이었다.

김 위원은 “민속문화재 상여는 제주인의 정신적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제주에서 칠성이라고도 불린 뱀은 회귀·재생과 함께 풍요, 장수 등을 상징했다. 상여에 뱀을 조형해 망자의 회귀를 기원하고 자손들의 평안과 번영을 염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상비꾼(상여잡이)들이 돌아올 때 ‘뗏쟁이’ 한 명을 뽑아 상여에 태운 뒤 ‘사또님 행차’라며 놀이를 즐겼다. 시신을 들 땐 12명도 버겁지만 이때는 4명도 가볍다는 말이 전한다”며 “장례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유희와 위로가 공존하는 의식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